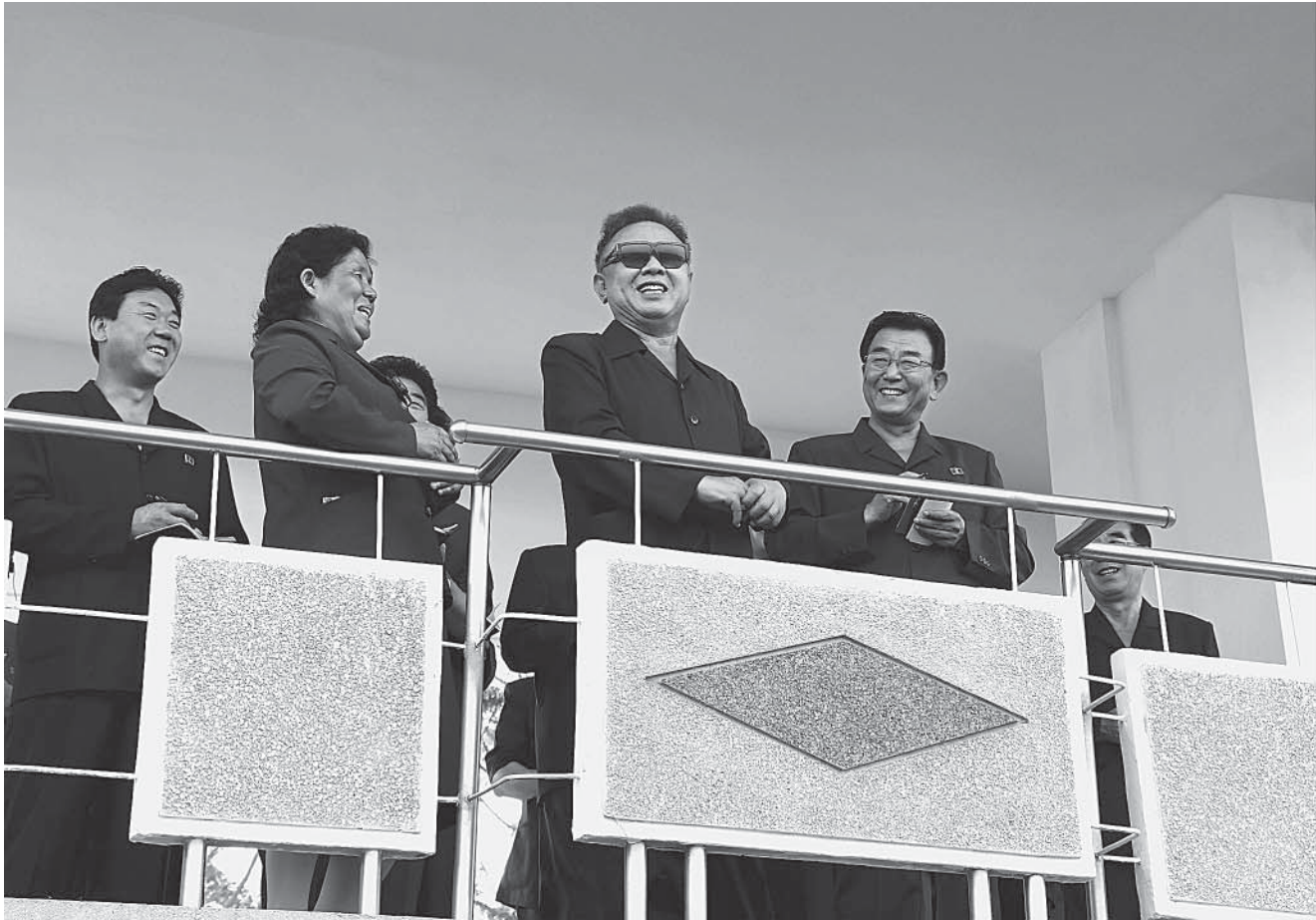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농장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농장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신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위대한 농촌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알곡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농장이 이룩한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전국농업근로자들의 민족체육경대회에서 농장이 씨름, 그네, 널뛰기종목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하였다라는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도 잘 짓고 체육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도 잘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새로 건설한 기계화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올해 영농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기계화작업반의 설계와 시공이 농기계들에 대한 보관관리를 잘할수 있게 특색있게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해제끼고있는 농장의 간싯 살림살이기를 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겠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한해 농사의 시작부터 잡도리

를 단단히 하고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날 농장에서 새로 건설한 청년분조의 문화 및 후방시설들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청년분조의 청년학교와 칩실, 식당, 취사장 등을 보시고 청년분조원들이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자기들의 일터를 알뜰하게 꾸리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조직하면서 사회주의농촌진지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사랑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전망대에 오르시어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바둑판마냥 아득히

펼쳐진 논밭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도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것 같다고, 멀리서 보니 경기장의 잔디밭을 보는것 같다고 만족하시면서 한쪽의 그림같은 농장의 풍경이야말로 집단경리를 생리로 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푸르른 협동전야와 산기슭마다에 준비하게 늘어진 문화주택들,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 및 공공건물들을 비롯한 농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신암협동농장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농촌건설은 우리의 농촌을 더욱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농장마을을 사회주의 맛이 나게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올해에 례년에 없는 풍작을 마련하여 전국의 농장들중에서 앞장에 서겠다는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결의를 다시금 적극 지지고무해주시면서 그들이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대형조기직장, 제관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5m³《장백》호굴착기와 1m³유압식굴착기, CNC플라즈마절단기 등 기업소에서 만들고있는 기계제품들의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먼저 지난해 새로 만든 5m³《장백》호굴착기의 현장도입실태와 그 이후 기술개조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동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장백》호굴착기의 권양능력을 높이고 그 질을 개선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지금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는 굴착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성능높은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1m³유압식굴착기의 뿔프와 원동기를 비롯한 핵심부분품들의 질제고정형을 상세히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기업소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유압기구직장의 CNC화를



실현한데 기초하여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종 유압제품개발을 적극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고 제품의 질을 개

선하는데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성능높은 CNC플

라즈마절단기도 보아주시고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훌륭

한 설비를 만들어낸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장백》호굴착기와 유압식굴착기, CNC플라즈마절단기를 비롯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 내고있는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 과학기술증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조국의 통일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매를 보여 줌으로써 련일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지난 시기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서 계속 큰 몫을 맡아 해제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공연들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예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불면 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전대원들은 남성독창과 합창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대화시 《사랑의 그 자욱 영원하리라》, 어은금과 녀성중창 《장군님 가시는 천리전선길》, 녀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재담 《증대생활 좋다》, 녀성중창 《명심합시다》, 시와 혼성중창 《병사는 벼이삭 실례는 소리를 들네》, 녀성3중창 《래일을 믿으라》, 남성중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선동시곡 《우

리가 안고가리라》, 합창 《조선청년행진곡》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열광적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군부대에예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전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10215군

부대, 제963군부대, 조선인민내무군의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공연무대에 설화와 노래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대화시 《고생록》, 선동곡 《세발의 총탄》, 재담 《안해》, 시이야기 《결사의 전초에 우리도 서있다》, 독연 《소원》, 기악3병창 《그이의 한생》, 막간극 《위급군관안해의 궁지》, 중창이야기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2인곡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 대화시 《어머니의 성적증》, 선동시곡 《우리는 대결속에 살고있다》,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긍지높고 보람찬 생활을 작품들에 참신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선군시대 인간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인식교양적의가 크고 사상에 예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와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은 당정책적요구들을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시기 제기되는 사회정치적문제들에 훌륭한 대답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경연에서 특별히 제정한 특

등상을 수여할것을 친히 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한 독연 《소원》을 비롯한 모든 작품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깊은 감명을 줄수 있는것은 창작자들과 예술소조원들이 들끓는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의 숨결을 호흡하면서 창작활동을 벌린데 있다고 하시면서 작품창작과 창조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작가 김원일과 군인가족예술소조원 백련희를 만나시시고 그들의 앞으로의 예술창작과 창조사업, 군인가족으로서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복 해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시대에 창조된 새 문화의 자랑찬 면모를 다시금 뚜렷이 파시하였다고 하시면서 대중문화예술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력사의 7월을 맞는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정모의 정오로 끓어번지고있다.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통일변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절세의 애국자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궁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수령님이 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민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어 주체의 심원한 진리를 밝히시고 선군의 총애와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겨레가 바라고바라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이끄시였다.

자주는 주석의 한평생에 판통된 애국의 리념이며 정치신조였다.

해방후 일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큰 나라의 가맹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조선식의 민주주의 사회건설을 주장하시고 일부 나라들에서 《국제적분업》과 《통합경제》를 운운하며 《세브》에 들것을 요구할 때에도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선을 걷기하신 주석이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지니고 계신 자주와 독립의 리념과 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정신의 강자로 자라났고 지난날 약소국의 대명사로 되었던 조선이 오늘은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주와 존엄의 강국으로 되게 되었다.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언제인가 주석을 만나뵈은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주석을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라면 나는 그분이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한것은 참으로 존경할만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 이것은 주석의 한생을 애국애족으로 빛내준 추동력이었다고 정신적지주였다.

일찍이 인민대중을 착취와 지배의 대상, 계몽대상의 로만 보아오던 지난 시기의 온갖 그릇된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대중이야말로 모든것의 선봉이며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것을 밝히신 주석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걸으시였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민주주의적개혁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농촌에 나가보고서도 발버리에서 농민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주체적인 토지강령을 작성하시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농민을 땅의 주인이 되게 하

신 수령님이시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보아야 한다시며 논 두렁길과 험한 진멸길, 천 길 지하막장에 이르기까지 주석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자욱은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어리였다.

지금도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시며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시고 인민들을 찾으실 때마다 수수한 멍석이나 토방우에 앉으시어 살림살이를 보살피시던 주석의 인자하신 모습은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바라는 모든것을 속속들이 헤아려보셨기에 주석께서는 한 인민의 의사를 보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펼치시어 이 땅에 자주와 창조로 들끓는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민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다.

해방후 남녘동포들에게 생명수와 전기를 보내주시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서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내주신 내도록 하신분, 깊은 밤 정적을 경계는 소쩍새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거듭 마음쓰시고 떠도는 비구를장을 보실 때면 남녘동포들생각에 잠 못 이루시던분이 바로 김일성주석이다.

어느해인가 그이께서는 한 해외교포를 만나신 자리에서 우리는 조선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리념을 가진 주석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자욱은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어리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주석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사랑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신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매혹되어 얼마나 많은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구름처럼, 시내처럼湧치고 모여 통일애국의 대하를 이루었던가. 김구, 러운형, 문익환, 최희호...

오로지 애국애족의 일념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오신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은 오늘날 온 겨레가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현장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는 어떤 리론이 아니라 그이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라고 전했다.

조국의 통일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분이사이에 온 겨레는 그이를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며 헌없이 그리워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그이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은 겨레는 경애하는 주석과 똑 같은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서 민족의 영원한 어머니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영상을 뵈옵고있으며 장군님께서 열어주시민 우리 민족끼리의 길을 따라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굳은 확신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최석현

절세의 애국자가문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지원》의 리념은 만경대가문의 좌우명이었다.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넘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 대를 이어가며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백철불굴의 정신이 《지원》의 사상이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해 땅국의 치욕을 당해야 했던 수난의 그 세월 애국의 일일념에 《지원》의 사상을 내놓

은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일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깡그리 바치시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

다, 너희들은 언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것이 자손들에게 남기신 김형직선생님의 유언이었다.

왜벌복국을 위해 나선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은 많았지만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신분은 김일성주석이다.

그이께서는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는데서 아직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세우시였다.

항일대전의 나날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 꼭 쉬자고 하시며 만주광야와 백두밀림에서 15성상 풍찬로숙하시며 성전을 벌리시였고 해방후에는 인민들이 잘살게 될 때 마음놓고 쉬자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이 땅위에 주체의 강국을 세우시고서는 조국이 통일된 다

음에 쉬자고 하시며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통일조국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주석이었다.

《지원》의 뜻대로 대대로 애국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는것은 만경대가문의 가풍이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즐거차게 이어지고 있다.

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사에 일찌기 없는 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졌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새시대, 6.15시대가 열렸다.

현렬한 애국충정과 무한한 헌신으로 애국의 결심과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만경대가문에 대해 남조선의 출판물 《말》은 《김일성주석의 가문은 대대로 민족투사, 민족의 영웅을 배출한 가정이다.》라고 전했다.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는 민족의 리상이고 소망인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이라는 결실을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과 《사향가》

범정학련 남측본부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사향가》에 나타난 인간애와 위대성 북의 기록영화에는 김일성주석께서 《사향가》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다. 참으로 인자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내 고향을 떠나를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나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신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이 노래는 김일성주석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로 북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 불리우고있다. 이 노래

를 통해 가사에 담겨진 사상과 감정, 그분의 인간적품모를 느낄수 있다.

가사에는 부모모께 드리는 효성, 형제들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어려있고 푸른 전초에 흐르는 너그름과 자애로움이 그분의 위인적품모를 흠뻑 느끼게 한다. 이 노래의 소재는 소박하지만 주는 감동은 매우 크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그분의 위대한 인간애와 심오한 철학적사상이 깃들어있기때문일것이다.》

본사기자

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종잡을수 없는 그였다. 기르륵 기르륵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갈 때면 어언 80세가 된 그의 주름깊은 눈가에선 눈물이 줄지어흘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교포사회에서 발간되는 석간신문에서 《민족은 곧 통일된다. 김일성주석 조국통일3대원

《내 드디어 옥새를 드릴분을 찾았다. 옥새를 받을실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내 이제는 기력이 쇠진하여 옥새함을 혼자서는 들고갈수 없으니 네가 날 도와 함께 평양으로 가자.》

이리하여 과란만장의 사연이 깃든 리조옥새가 평양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 주석께서는 로인과 아들들

그렇게도 쳐들리지 않던 옥새함이 가벼이 들리는것이였다. 그는 옥새를 안고 눈물을 쏟았다. 《아, 이제야 네가 주인을 찾았으니 이렇게 들리는구나. 오늘에야 삼천리강산이 주인을 만났구나!》

그렇게도 쳐들리지 않던 옥새함이 가벼이 들리는것이였다. 그는 옥새를 안고 눈물을 쏟았다. 《아, 이제야 네가 주인을 찾았으니 이렇게 들리는구나. 오늘에야 삼천리강산이 주인을 만났구나!》

이리하여 과란만장의 사연이 깃든 리조옥새가 평양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 주석께서는 로인과 아들들

본사기자

《사연깊은 옥새》

《내 드디어 옥새를 드릴분을 찾았다. 옥새를 받을실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내 이제는 기력이 쇠진하여 옥새함을 혼자서는 들고갈수 없으니 네가 날 도와 함께 평양으로 가자.》

이리하여 과란만장의 사연이 깃든 리조옥새가 평양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 주석께서는 로인과 아들들

본사기자

통일을 위해 바치신 거룩한 한생

조국통일을 위한 경도의 나날에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시며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 기자들을 만나시었다. 식사에서 그이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 조선의 통일문제와 그를 위해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한

탄생일을 맞으시는 날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 60돐을 맞으실 때였다. 온 나라에 경축의 물결이 끓어치는 그날에도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생각, 남녘인민들에 대한 생각이 뜨겁게 자리잡고있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아직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

단결하면 통일된다

주체80(1991)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외에서 온 한 교포를 만나시었다. 그로 말하면 한때 공화국에 대한 반감이 컸던 사람이였다.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환대하여주시는 것만도 황송한데 자기의 소원도 헤아리시며 자리를 함께 하신 아버지수령님을 뵈옵게 된 그는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시중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대해주시는 그이께 그는 주석님께서서

김영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과 관련한 증대문제에 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시었다.

《김일성

1994. 7. 7.》

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남기신 이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안되지만 여기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담겨져있다.

조국이 통일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밀렸던 잠도 푹 자고 마음놓고 휴식도 하겠다고 하시며 주석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가슴쓰러움을 금할수 없다.

가을의 정사를 논할때에도, 이른새벽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고 불야경이론 건설장의 발길을 걸으시며, 창밖에 내려비려도 그 언제나 피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싸오신 주석이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우리 집안은 원래 머리가 잘 세지 않는데 나만은 머리가 많이 세었다고, 나의 머리가 이렇게 많이 세어지게 된것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인민이 겪고

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덜어주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이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천만근의 무게가 실린 거대한 필봉으로 천년바위가 깊이 깨이도록 역세인 힘을 가하여 시원스럽게 그은듯 한 주석의 친필, 그 자자구구에는 민족분열의 장벽을 기어이 허물고 조국통일의 새날을 안아오시려는 그의 숭고한 뜻이 맥맥히 어려 있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김일성주석의 불변의 의지이고 철석의 신념이었다. 주석께서 20상상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열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이께서 백두산밀영에서 등잔불로 비쳐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3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었다.

주석께 있어서 통일은 필생의 위업, 절절한 념원이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 음모가 발악적으로 추진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시분도 주석이고 분열주

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고 격렬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주석이었다.

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해주시었다.

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에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속시어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주석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에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토록 정력적으

로 활동해오신 주석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의 박동도 통일을 위해, 겨레를 위해 바치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주석의 마지막친필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것을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그의 불변불류의 로고이고 크나큰 심혈의 고귀한 증표이다. 김일성주석의 강인한 통일애국의지와 신념이 함축된 불멸의 친필비를 판문점에 세워주시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석의 통일친필비를 판문점에 세워주시는데 그의 위대한 통일령도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며 불멸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 있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 7천만겨레에게 통일을 안겨주시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라고 결연히 말씀하신 장군님이다.

판문점에 세워진 통일친필비는 주석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인 동시에 그의 통일유혼을 기어이 관철하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7천만겨레의 의지가 비견되는 기념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시며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시며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시며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시며

김영진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체득해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견우와 직녀의 전설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이다.

해마다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이면 1년동안 헤어져있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로 은하수를 건너 만나곤 한다는 이 전설은 청춘남녀의 애뜻한 사랑의 이야기인 동시에 리념의 산봉과 절절한 상봉의 그리움을 담고

기원해왔다. 견우와 직녀는 한갓 전설속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외세의 위해 60여년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를 상징한다고도 할수 있다.

민족이 당하는 분열의 고통에 대해 제일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을 위해 불변불류의

통일오작교를 놓아주시기 위해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마음싸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문건에 마지막으로 수표하신 그날도 7월 7일이였다. 칠월칠석과 7월 7일. 이것을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만 하라.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분이 주석이었다.

그이의 위대한 한생은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생이었다. 우리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지새우신 밤 그 얼마이며 걸으신 길은 몇천몇만리던가.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그대로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먼

지 생각하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시던 경애하는 주석이었다. 해방직후 물이 없어 고생하는 남녘의 농민들에게 생명의 물을 보내주시고 전하의 나날에는 서울시민들의 겨울나이를 위한 땀길을 위해 나무를 베어 한강에 떠내려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

기 위해 사색의 낮과 밤을 보내시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바쳐 오신 그의 애국헌신의 뜻과 노력이 마지막친필에 그대로 함축되어있다.

저 하늘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데처럼 갈라진 북과 남에 통일오작교를 놓아 민족이 함께 모여

살 통일의 그날을 안아오시기 위해 사연깊은 7월 7일에 력사적인 통일친필을 새기시지 않았던가.

《김일성

1994. 7. 7.》

정녕 력사의 그 친필은 잃어진 국토와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심장의 고동소리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녘동포는 우리의 <적> 이 아니다》

남조선의 《통일뉴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 《〈한국의 진보세력들 가운데서 북녘동포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에겐 분열, 전쟁, 굴종을 강요하고 사대노예의 굴레를 씌우는 미국이 <주적>으로 단죄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그들의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민족을 어둠과 굴종의 막다른 길로 내미는 사대매관(정권), 조국산천을 <4대강살리기>라는 거짓명분으로 마치 제정마당인양 마구 파헤쳐 색은

남새가 진동하는 쓰레기터미로 만드는 무지막지한 정치 권력이 국부대상인것이다. 무엇보다도 북녘동포는 절대로 우리의 <적>이 아니다.

북녘동포의 적도 남녘동포가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북의 모든 조직체들은 바로 침략세력으로부터 자기의 신성함을 조국을 지켜내고 나아가 남, 북, 해외가 함께 부강한 자주적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에 모든것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받들고 싶고하며 우리에게 분열, 전쟁, 굴종을 강요하는 미국과 일본, 그들의 대리(정권)으로 전락한 한중도 안되는 분열시대 때

판세력이 우리의 주적이자 북녘동포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북은 미국,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침략죄국가나 리명박(정권)과 같은 사대매관국가 아니다.

북은 전쟁, 학살, 착취, 거짓, 위선으로 세계를 끌고이 파괴하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북이 <4대강사업>으로 자연재앙이나 부르코 주권을 송두리째 다시 가져다말긴 <진식작전통제권반환> 연기도 모자라 <천안> 함사건을 조작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의세의 전경도발전략에 내맡기는 그런 사대매관 국가가 아니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수

겨레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하시여

오는 14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9돐이 되는 날이다.

주체61(1972)년 7월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7.4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해외의 전제 조선동포들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서 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삼천리강도는 통일의 열망으로 끓어번졌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오자마자 《종이장 환장이다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느니,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느니 하면서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내뱉었다가 하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탄압하였다.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안팎의 반동세력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고수하며 통일운동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 주체61(1972)년 7월

14일 력사적인 로작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발표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가 가지는 거대한 사변적의의를 밝히시고 공동성명리행을 거부해나서고있는 반동일분자들의 책동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감파하시며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당성과 그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었다. 로작에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군주주의의 제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전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군원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있다.

로작은 우리 겨레에게 민족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려 준중추한 력사적 제부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찍부터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우리 민족자주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쳐 오시었다. 그 나날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었다.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온 민족과 세계앞에 확약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이다.

로작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여실히 확증되었다.

미국과 그와 결탁한 남조선반동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전장상태가 가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야말로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담보해주는 필승의 보검

이다. 로작이 발표된 이후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온 겨레를 민족대단합실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민족적력량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 대가분가가건 집권상층에 있던 관계하지 않고서도 넓은 포용력과 아량으로 손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졌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에 온 겨레가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민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이 로작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더불어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온 겨레에게 신심과 락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유정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원간에 조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배후준비위원회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불례전을 발행하였다.

불례전은 글에서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핵무기철폐는 조선통일의 선결조건이다. 남조선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괴뢰정부는 북남대

화파탄의 장본인이다. 남조선에서 계속되는 군사연습,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와 비난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주의 조선을 압살하려고 망상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시시각각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질주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만

민의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원수님을 모시고있고 조선로동당이 모시기에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모략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되고 현대적무기를 갖춘 무적의 대오로 자라났다.

수령, 군대, 인민의 단결을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본사기자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을

정책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내실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남조선의 부산지역 거성단체들도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6.15, 10.4선언리행으로 전쟁을 막을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전쟁위기를 높이고있는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지키고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의 대결

본사기자

만고역적 리명박패당의 죄행을 단죄규탄하는

평양 시 군 민 대 회 진 행

4일 평양에서 치른 만고역적 리명박패당의 죄행을 단죄규탄하는 평양시군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장소인 김일성광장은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공화국대결장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의의 보복성으로 대결광신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 기세드높이 모여온 10만여명의 군중들로 차넘치었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라!》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문경덕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랑독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장령 장정남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총대로 리명박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행위를 단호히 짓궂게버릴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대결광신자들에게 천백배의 군사적보복타격을 안길 의지에 넘

었다고 말하였다.

역적패당이 괴뢰군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의 군사시설물들과 주변도로의 안내간판들 심지어 담장들까지 우리의 최고존엄과 우리 체제, 우리 군대를 중상모독하는 구호들을 써붙이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은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인 정면도전이며 기어이 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는 새로운 선전포고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천하에 돌도 없는 대결광신자들이 우리에게 전쟁까지 불사하는 극단의 도발에 감히 절어는 이상 북과 남사이에는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물리적결산만이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리명박역적패당은 천백배보복일념으로 불라는 우리 군대의 준엄한 총대맛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이 땅

우에, 이 하늘아래에 살아 남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불멸의 위력과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는 한 선군조선의 최고존엄은 영원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리용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은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의세와 야합하여 북남판계를 전면적인 파국으로 몰아넣고 전대미문의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거부하다 못해 무덤하게도 하늘에 새겨질하는 리명박역

도와 군부불한당들의 무분별한 대결장동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500만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민족의 극악한 원수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표시하였다.

우리에게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선군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으며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배쟁을 키우고 선렬들이 남겨준 혁명의 무기를 역세게 틀어쥔 선군청년전위의 대부대가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민족의 원수 리명박역도와 괴뢰호전광들이 제 아무리 피를 물고 덤벼들어도 존엄은 우리의 사상과 체제, 제도는 끄떡없으며 천만군민의 적개심은 더욱 강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학생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부대,

별동대에게 진민족적인 보복성전에서 역적패당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혁명탄광 광장 김호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로동계급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역적패당을 무사마치로 짓궂게버릴 각오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는 이번에 또다시 우리의 최고존엄과 우리 체제, 우리 군대를 중상모독한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공화국대결장동은 우리에게 대한 정면도전이며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하였다.

엄중한 사태는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불구대전의 원수라하는것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이름으

로 민족앞에 특대형범죄행위만을 저지르고있는 역적무리들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는 리성과 분별을 잃고 반공화국대결장동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증오는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만장약해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담하는것이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의 길에서 천백배로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체질된 신념이며 배짱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리명박역적패당이 우리에게 전쟁까지 불사하는 극단의 도발을 감히 절어는 이상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은 정의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대결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언제나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간직하고전체 로동계급이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만경대구역 만경대내세전문농장 관리위원장 김영복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보복의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 체제와 군대를 헐뜯는자들은 결코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에 살아숨쉬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민족을 등진 대결광신자들은 자기가 저지른 도발행위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반역무리들을 징벌하지 않는다면 민족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인민의 증오는 하늘

에 닿고 우리의 참용성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역적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괴뢰패당과는 더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총대로 결판을 내야 한다는 우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차넘치는 보복의 일념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경에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들이 진행되는 동안 대회에서는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인 리명박역적을 타도하는 참가자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터져나왔으며 동족대결의 광신들을 단애에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선군조선의 영웅적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지를 반영한 구호들이 연방을 떠나왔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리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야말것이다

서울에서 반 《정부》 집회 진행, 1만 2 000여명 참가, 각계각층 군중 1만여명 괴뢰역적심판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6월 29일 서울에서 괴뢰당국의 반로동자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민주로총 산별로조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지역의 로동자들과 대학생 등 1만 2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민주로총 위원장 김영춘, 금속로조 위원장 박유기,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의장 박자은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 《정권》의 친자본정책, 반민중적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의 부자와 광배들이 살판치고 로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부당한 로동자탄압, 친자본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리명박 《정권》을 박살내기 위해 곳곳에서 독재통치청산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가 6월 29일 서울에서 민생과한 리명박 《정권》 심판국민집회를 가지었다.

로동자, 농민, 대학생 등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민주로총 위원장 김영춘,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리광석,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의장 박자은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학자금대출정

책으로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반값등록금공약이행을 거부하고있는가 하면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농민들과 빈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생을 여지없이 파탄시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전면적인 대 《정부》투쟁으로 전민중의 힘을 보여주자고 하면서 《살인정권, 친제벌정권인 리명박정권을 타도하자!》고 웨쳤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파출경찰은 114개 중대 9 000여명의 폭압력량을 집회장소로 시위주변에 배치하고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며 날뛰었다.

본사기자

전쟁을 선동하는 《통일교육》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당국 못지 않게 교과서의목숨에 열을 올리고있다. 외세가 우리 민족사를 왜곡하는 것만도 격분할 일인데 얼마전 남조선 통일부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대결과 전쟁의식을 주입시킬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2종의 교재라는것을 발간했다. 그것이 바로 《통일문제리해》와 《북리해》이다.

이 책들은 제목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도발적이며 호전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동족에 대해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속명적》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로,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건설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것은 흡수통일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보수세력은 《북의 이중성》, 《갈등과 긴장》을 운운하며 이 교재들에서 지난 시기에는 없던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이라는 절을 새로 추가하여 모략적인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을 비롯한 역사적으로 강행한 저들의 도발행위들을 그 누구의 《소행》으로 언급함으로써 동족에 대한 적의와 불신의 감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있다. 또한 지난 시기에 교재의 기본내용으로 되어있던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부분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저들의 음흉한 속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특히 엄중한것은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악의에 차서 혈투는 바로 그것이다.

《어떤 체제에서도 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실형》이라느니, 《북내부의 정치상황이 가변적》이어서 《2012년 경제강국목표의 차질은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된다.》느니 하는 허위와 도발로 가득찬 문구들은 전쟁광자, 민족반역자들에게 대한 선전포고는 분노를 급할수 없게 한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이렇듯 반공화국대결로 일관된 이 교재들을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인 각각 10만부씩 인쇄하여 남조선전지역의 1만 천여개의 각종 학교들과 연구기관, 교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고있다.

이 책들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만든 장본인은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다. 한때 그 무슨 교수까지 했다는 그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지금 남조선보수세력은 이 계획이 수행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마련되고 이 지역이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관광지개발놀음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 한갓기만에 불과하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명박 《정권》의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전쟁장동에 따라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있다.

특히 서해수역은 언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최대의 화약고로 전변되었다.

지난해 모략적인 《천안》 호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사건을 도발한 남조선호전세력은 지금 불법무법의 유령선

인 《북방한계선사수》를 고아면서 서해 5개 섬일대에 수많은 최신전정장비수단을 끌어들이는 한편 무장총들을 야기시키기 위한 전쟁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 있다.

그뿐아니라 군부우두머리들은 《단호한 대응》이니, 《북방한계선사수》를 고아면서 서해 5개 섬일대에 수많은 최신전정장비수단을 끌어들이는 한편 무장총들을 야기시키기 위한 전쟁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 있다.

그뿐아니라 군부우두머리들은 《단호한 대응》이니, 《북방한계선사수》를 고아면서 서해 5개 섬일대에 수많은 최신전정장비수단을 끌어들이는 한편 무장총들을 야기시키기 위한 전쟁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 있다.

평도사건보다 더한 상상밖의 물리적충돌이 일어날수 있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지역의 주민들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으며 지어는 너도나도 떠나가버리는 사

5개 섬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꾸리려고 하는것은 저들의 부친전쟁도발책동을 판팡이라는 화려한 비단보자기로 가리우고 《북방한계선》과 이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데 있다.

거기에는 《정부》의 대결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 지역사람들과 남조선주민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고 관광객들을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에서 인간방패로 써먹기 위한 타산도 있다.

앞에는 판팡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군사적대결장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야말로 동족과의 대결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등호전병, 천하에 돌도 없는 대결광신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최저임금인상관련 협상안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단체들과 야당들이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012년 최저임금의 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에서 경영자측이 재벌들의 이익을 반영한 협상안을 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임금삭감 등의 내용이 반영될것으로 하여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나머지 생존을 이어가는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롤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 1위에 이르고있는 비참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 《정권》에 대하여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과는 최저임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나머지 생존을 이어가는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철 폐 되어야 할 노예문서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월 중순 남조선에서 근무하던 미군병사들이 미국의 한 방송을 통해 1978년 자기들이 상급의 명령을 직접 받고 고엽제를 넣은 수백개의 도람통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미군기지에 매몰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 기지에서 오래동안 일한 남조선주민들도 1973년 미군

로 살포되었다. 그때 고엽제살포에 내몰렸던 사병들중 수천명이 죽고 그 지역 인민들을 포함해 수만명이 불치의 병에 걸려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다.

독성물질인 고엽제를 남조선에 마구 쏟아부어 살포하고 도처에 제멋대로 묻어놓은 미군의 만행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엄중히 해치는 무서운 범죄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고엽제매몰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형식적인 《조사》를 내놓으면서 분노한 민심을 누착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지어는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운운하며 범죄책임에서 회피하려 하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은 미

군이 감행한 환경과피해의 일부를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20년간 토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킨 미군 매국적이고 노예적인 문서인가,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전역 미군기지 및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거나 남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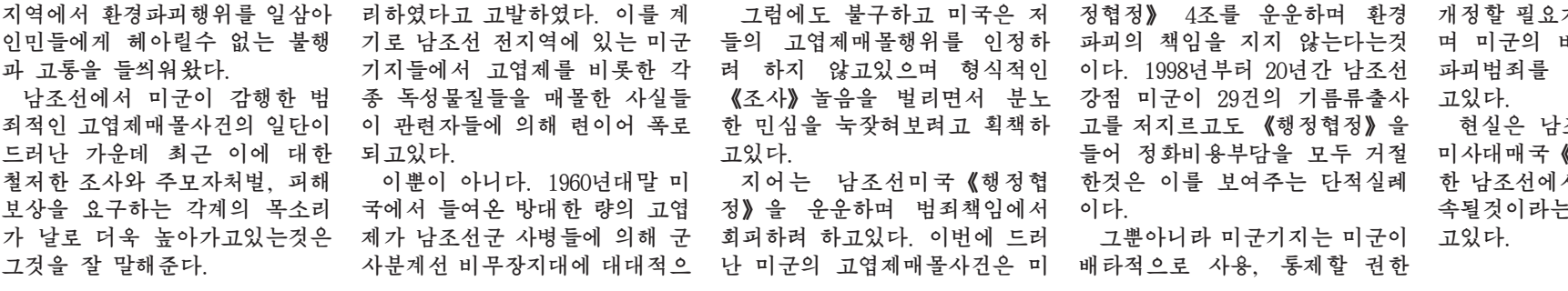
을 갖는다는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지 환경사고는 남조선에서 발생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조사권조차 없어 항의 한마디 못하는것이다. 이 얼마나 매국적이고 노예적인 문서인가.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고엽제문제는 남조선헌미국 《행정협정》 철폐가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친미에 환장한 리명박 《정권》은 고엽제매몰사건은 오래전의 일이므로 미군을 처벌할수 없다는니, 쌍방이 합의가 잘되면 남조선에서 환경과피해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장점 미군과 친미사대매국 《정권》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에서 치욕의 역사는 지속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용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만고역적을 단죄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괴뢰역적배당의 극악무도한 도발적망동으로 최악의 파국에 처해있다.

리명박역도가 북남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여왔는가 하는것은 그의 추악한 말발들이력사의 산 기록으로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적망발

6.15이후 종계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된것은 무엇보다 리명박역도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온데 있다.

역도는 집권하기 전부터 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흉심을 드러냈다.

2007년 5월 10일 리명박역도는 괴뢰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에서 6.15공동선언발효이후의 경이적인 북남관계의 발전을 《북에 끌려다니 남북관계》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고 모독하였다. (《파이낸셜뉴스》 2007. 5. 10)

그런가하면 2007년 8월 29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역도는 《로무현정부와 민주당이 민족공조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중요시하지만 나는 전통적우호적인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도전해나섰다. (《세계일보》 2007. 8. 29)

특히 2007년 11월 27일 선거유세장에서 역도는 선언리행에 대해 《과거》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따지겠다》고 꿰뚫었다. (《매일신문》 2007. 11. 28)

괴뢰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역도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더욱 로골적으로 부정하는 말발들을 꿰뚫었다.

역도는 2008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이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10.4선언을 터무니없이 시비하면서 그 리행을 회피하려는 속심을 드러냈으며 2008년 2월 1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평양에 가서 수표하고 왔다고 하여 후임자가 리행하는것은 아니다. 우선 할것, 나중에 할것, 못할것을 구분하겠다》고 하면서 선언리행을 사실상 전면부정하였다. (《연합뉴스》 2008. 1. 14. 2)

특히 리명박역도는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칙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해서까지 악랄하게 모독, 유린하였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역도는 《대북정책을 리념의 자애가 아니라 실용의 자애로 풀어가겠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3월 1일 《대통령》 취임후 첫 《3.1절기념사》와 4월 3일 괴뢰군장성들의 임명식이라는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는 《연협한 민족주의》이고 《배라적 민족주의》이며 《그것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고 망발하였다. (《아시아경제》 2008. 2. 25. 《KBS》 2008. 3. 1. 《통일뉴스》 2008. 4. 3)

리명박역도는 이처럼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 유린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정보원 등 괴뢰정권의 각 부, 처들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리명박역도의 반통일대결망발백서

조국통일연구원은 극악한 동족대결망발자인 리명박역도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망발백서를 낸다.

6.15관련단체들을 가족하게 란 압박했으며 지어는 여당메거리들과 정치폭력강대들을 내몰아 북남공동선언에 도장을 찍은 두 전직 《대통령》을 모해, 박해하여 끝끝내 죽음에 몰아넣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악랄한 북남관계부정망발

리명박역도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고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였다. 역도는 집권직후인 2008년 3월 14일 괴뢰통일부에 《북에 어떤 대화제안이나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지령하였으며 이어 3월 26일 통일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협상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대화를 전면부정해나섰다. (《통일뉴스》 2008. 4. 3. 《연합뉴스》 2008. 3. 26)

그에 대한 비난이 내외에서 크게 일어나자 리명박역도는 2008년 4월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기초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조정기간을 거치고있다.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고있다》는 꾀변을 늘어놓았으며 6월 3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가진 회견에서 6자회담을 결코 《남북관계만 진전시키는 별도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머니투데이》 2008. 4. 13. 《뉴스》 2008. 6. 6)

리명박역도는 북남대화와 북남관계를 가로막기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핵포기》니, 《건설성》이니, 《원칙고수》니, 《북로대 변화》니 하는 등 별의별 구실을 다 가져다붙였다.

역도는 2008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등에서 《선핵포기》니, 《과거》니 하면서 북남협력사업에 차단을 내리려는가 하면 11월 12일 《북이 자세를 바꾸기를 기다리고있다.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고 꿰뚫었다. (《연합뉴스》 2008. 3. 26. 《뉴스》 2008. 11. 12)

리명박역도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줄곧 외면하였다.

우리는 괴뢰보수배당이 집권한 첫날부터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북남대화에 성근하게 나올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그와 관련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성의껏 내놓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리명박역도는 《남북관계에서 후퇴한것은 없다》, 《분단 60여년에서 1년간 정색될것은 있을만 한것이다》라는 소리를 쉴새없이 늘어대며 대화를 하면 《북의 권력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된다》, 《대화를

역도가 북남공동선언에 대해 얼마나 적의를 가졌는가 하는것은 그가 집권기간 여러차례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공동선언발표기념행사에 한번도 머리를 들이밀지 않았으며 선언리행에 대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역도가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북남관계는 애초부터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안하는것이 대북정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서 도전해나섰다. (《통일뉴스》 2008. 8. 18. 2009. 1. 31. 《문화일보》 2011. 2. 17)

지어 역도는 《원칙없는 회담을 하지 않겠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있다고 본다》, 《임기중에 정상회담을 한번도 안해도 좋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연합뉴스》 2009. 11. 6. 2010. 4. 23. 《동아일보》 2010. 11. 15)

리명박역도는 저들족속들에게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라》, 《내입기 5년동안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어도 좋다》, 《남북관계가 잘된다면 말을 들으려 하지 말라》고 장기간적사, 특사파견 등을 다습해 추진하려 한다고 제기하자 《대화제개가 우리의 목표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욕설을 퍼부어 못내 나중에 그의 목을 때고 극악한 반통일대결분자인 현인택을 그 자리에 들여앉혔다. (《중앙일보》 2009. 1. 5. 《KBS》 2009. 2. 12)

남조선에서 현인택에 대한 원한이 높아가는데 따라 2011년 2월 1일 TV좌담회에서 통일부장관 등 보수강경파들을 교체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대해 역도는 《북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매일경제》 2011. 2. 1)

역도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는 저들의 불찰로 일어난 불상사건 관광객사건을 코에 걸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정보장조치》를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관광제개를 거부해나섰는가 하면 도발적인 함성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더이상 대화와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공언하고 그 무슨 《인정》과 《사과》를 북남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다. (《KBS》 2008. 7. 16. 《연합뉴스》 2010. 5. 24. 2011. 4. 1)

이 모든것은 리명박역도에게 북남대화는 물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꼬를만큼 없으며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아 방해하자는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극악한 체제대결망발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은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라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실현할 때 대한 문제들이 밝혀졌다.

리명박역도는 이 북남관계의 기본원칙, 조국통일3대원칙을 란 폭하게 짓밟고 그 누구의 《변화》와 《개방》이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뭐니 하며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었다.

역도는 2007년 2월 6일 외신기자초청간담회 등에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대북

이 모든것은 리명박역도에게 북남대화는 물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꼬를만큼 없으며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아 방해하자는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추악한 반공화국핵소동망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소동, 핵위협 때문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국 협력, 추종해나서면서 상전과 함께 우리의 《핵포기》만을 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것은 순전히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자는것으로서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남조선에서 이전 괴뢰통치배들이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왔지만 리명박역도처럼 외세와 야합하여 핵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대결목적으로 악용해보려고 발악한자는 없다.

리명박역도는 2007년 11월 19일 방송기자들과의 토론회와 그에 앞서 있는 9월 10일 《중앙일보》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핵을 폐기시키는것이 남북관계현안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자기는 《로무현, 김대중정권과 달리 핵포기를 넘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꿰뚫었다. (《MBC》 2007. 9. 10. 《경향신문》 2007. 12. 27)

그것도 부족하여 역도는 2007년 11월 30일 《북이 핵포기와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것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망발하고 2008년 2월 초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북핵포기가 남북관계의 대제》라고 공언한데 이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사에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공식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노컷뉴스》 2007. 11. 30. 《자주민보》 2008. 2. 7. 《KBS》 2008. 2. 25)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개원선설과 9월 26일 외국가자들과의 회견에서 역도는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관건》 등으로 묵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개원선설과 9월 26일 외국가자들과의 회견에서 역도는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관건》 등으로 묵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극악한 체제대결망발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은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라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실현할 때 대한 문제들이 밝혀졌다.

리명박역도는 이 북남관계의 기본원칙, 조국통일3대원칙을 란 폭하게 짓밟고 그 누구의 《변화》와 《개방》이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뭐니 하며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었다.

역도는 2007년 2월 6일 외신기자초청간담회 등에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대북

이 모든것은 리명박역도에게 북남대화는 물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꼬를만큼 없으며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아 방해하자는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추악한 반공화국핵소동망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소동, 핵위협 때문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국 협력, 추종해나서면서 상전과 함께 우리의 《핵포기》만을 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것은 순전히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자는것으로서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남조선에서 이전 괴뢰통치배들이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왔지만 리명박역도처럼 외세와 야합하여 핵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대결목적으로 악용해보려고 발악한자는 없다.

리명박역도는 2007년 11월 19일 방송기자들과의 토론회와 그에 앞서 있는 9월 10일 《중앙일보》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핵을 폐기시키는것이 남북관계현안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자기는 《로무현, 김대중정권과 달리 핵포기를 넘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꿰뚫었다. (《MBC》 2007. 9. 10. 《경향신문》 2007. 12. 27)

그것도 부족하여 역도는 2007년 11월 30일 《북이 핵포기와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것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망발하고 2008년 2월 초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북핵포기가 남북관계의 대제》라고 공언한데 이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사에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공식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노컷뉴스》 2007. 11. 30. 《자주민보》 2008. 2. 7. 《KBS》 2008. 2. 25)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개원선설과 9월 26일 외국가자들과의 회견에서 역도는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관건》 등으로 묵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개원선설과 9월 26일 외국가자들과의 회견에서 역도는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관건》 등으로 묵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추악한 반공화국핵소동망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소동, 핵위협 때문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국 협력, 추종해나서면서 상전과 함께 우리의 《핵포기》만을 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것은 순전히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자는것으로서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남조선에서 이전 괴뢰통치배들이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왔지만 리명박역도처럼 외세와 야합하여 핵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대결목적으로 악용해보려고 발악한자는 없다.

이 모든것은 리명박역도에게 북남대화는 물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꼬를만큼 없으며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아 방해하자는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추악한 반공화국핵소동망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소동, 핵위협 때문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국 협력, 추종해나서면서 상전과 함께 우리의 《핵포기》만을 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것은 순전히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자는것으로서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남조선에서 이전 괴뢰통치배들이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왔지만 리명박역도처럼 외세와 야합하여 핵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대결목적으로 악용해보려고 발악한자는 없다.

리명박역도는 2007년 11월 19일 방송기자들과의 토론회와 그에 앞서 있는 9월 10일 《중앙일보》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핵을 폐기시키는것이 남북관계현안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자기는 《로무현, 김대중정권과 달리 핵포기를 넘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꿰뚫었다. (《MBC》 2007. 9. 10. 《경향신문》 2007. 12. 27)

그것도 부족하여 역도는 2007년 11월 30일 《북이 핵포기와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것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망발하고 2008년 2월 초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북핵포기가 남북관계의 대제》라고 공언한데 이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사에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공식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노컷뉴스》 2007. 11. 30. 《자주민보》 2008. 2. 7. 《KBS》 2008. 2. 25)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개원선설과 9월 26일 외국가자들과의 회견에서 역도는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관건》 등으로 묵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개원선설과 9월 26일 외국가자들과의 회견에서 역도는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관건》 등으로 묵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추악한 반공화국핵소동망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소동, 핵위협 때문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국 협력, 추종해나서면서 상전과 함께 우리의 《핵포기》만을 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것은 순전히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자는것으로서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남조선에서 이전 괴뢰통치배들이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왔지만 리명박역도처럼 외세와 야합하여 핵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대결목적으로 악용해보려고 발악한자는 없다.

하면 온갖 어중이떠중이 인간 쓰레기들까지 끌어모아 베라살포와 반공화국도략방송을 강화하라고 고아했다. (《아시아경제》 2010. 12. 29. 《문화일보》 2011. 2. 17. 《통일뉴스》 2011. 4. 12)

지어 역도는 2011년 5월 8일 도이첼란드행각시 동포간담회에서 《1989년 서도이첼란드 수상이 베를린장벽이 50년은 더 갈 것이라고 했는데 10개월후에 무너졌다》고 하면서 남북통일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2011년 6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족속들을 모여놓고 《통일은 도적같이 한밤중에 올수 있다》는 망발까지 꿰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매일경제》 2011. 5. 9. 《파이낸셜뉴스》 2011. 6. 21)

실로 리명박역도의 체제대결망발은 그 악랄성과 극악무도성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무분별한 군사적대결과 전쟁망발

12월 23일 괴뢰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소와 최전방 괴뢰군부대에 가서는 《교전규칙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 《대남관계를 가해야 한다》, 《응당만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북쪽을 향해 눈을 부릅떠야 한다》 등의 극악한 망발도 마구 내뱉었다. (《KBS》 2010. 5. 24. 《아시아경제》 2010. 6. 9. 《연합뉴스》 2010. 12. 23)

역도가 얼마나 대결과 전쟁에 환장이 되였는가 하는것은 2011년 6월 24일 청와대에 괴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불러다놓고 《연평도포격때 북을 타격하지 못했것이 천주의 한이다. 울화통이 터져 정말 힘들었다.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 참을수 없다》고 꿰뚫면서 집중적소로 드러내고있다. (《동아일보》 2011. 6. 24)

최근 괴뢰군부대장이 감히 우리의 체제와 군호존엄을 건드리는 표적사건, 구호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도발적망동을 감행한것은 리명박역도의 이러한 망발과 악단, 혼시에 따른것으로서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이다.

이상의 리명박역도의 망발은 남조선언론들에 공개된것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역도의 망발을 다 련거 하자면 끝이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리명박역도의 극악무도한 반통일대결망발을 두고 《대통령의 허가 국민단체를 참하속에 빠뜨리고있다》, 《리명박의 대북정책은 독사의 정책》, 《리명박은 일타치고 살아라》 등으로 치솟는 격분을 넘쳐 단죄하고있다. (《연합신문》 2010. 5. 25. 《통일뉴스》 2011. 5. 12)

대국적적 리명박역도의 극악한 만고대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민족과 함께 역적배당을 기어 이 심판하고야말것이다.

이상의 리명박역도의 망발은 남조선언론들에 공개된것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역도의 망발을 다 련거 하자면 끝이 없다.

주제 100 (2011)년 7월 6일

조국통일연구원

《보안법》철제를 주장

남조선의 《보안법》피해자들의 모임이 6월 25일과 26일 총정복도 총주에서 《보안법》철폐를 위한 집회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악법에 의한 피해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그들은 최근 리명박역적배당이 《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공안세력을 내몰아 진보세력에 대한 강간주색, 주색, 련행 등 대대적인 탄압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그들은 조국통일운동에서 《보안법》피해자들의 모임의 역할을 높여 나갈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악법 《보안법》을 철거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안고 투쟁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지금 공화국과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녘땅에서도 하나의 반통일대결악법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보안법》보다 더한 반통일대결악법

지없는 《금병사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남조선보수당국은 반통일파조악법인 《보안법》을 더욱 악랄하게 휘둘러 주주, 민중,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보수배당에 의해 6.15이후 기가 죽었던 《보안법》은 더욱 시퍼렇게 살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보안법》보다 더한 반통일대결악법

지없는 《금병사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남조선보수당국은 반통일파조악법인 《보안법》을 더욱 악랄하게 휘둘러 주주, 민중,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보수배당에 의해 6.15이후 기가 죽었던 《보안법》은 더욱 시퍼렇게 살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보안법》보다 더한 반통일대결악법

지없는 《금병사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남조선보수당국은 반통일파조악법인 《보안법》을 더욱 악랄하게 휘둘러 주주, 민중,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보수배당에 의해 6.15이후 기가 죽었던 《보안법》은 더욱 시퍼렇게 살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보안법》보다 더한 반통일대결악법

지없는 《금병사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남조선보수당국은 반통일파조악법인 《보안법》을 더욱 악랄하게 휘둘러 주주, 민중,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보수배당에 의해 6.15이후 기가 죽었던 《보안법》은 더욱 시퍼렇게 살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보안법》보다 더한 반통일대결악법

지없는 《금병사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남조선보수당국은 반통일파조악법인 《보안법》을 더욱 악랄하게 휘둘러 주주, 민중,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보수배당에 의해 6.15이후 기가 죽었던 《보안법》은 더욱 시퍼렇게 살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

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배당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보통문

본사기자 동장현 씌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감정이 매우 풍부하고 인정이 많은 다정다감한 민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옛날 시골사람들은 덕과 의를 권하고 허물을 서로 고치며 례의있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4대덕목을 《향약》(시골사람들의 생활준칙)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집이 있으면 남나로소 모두 떨쳐나 버릴 한탄씩 들고나가 소박하게나마 정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례의풍속이었다.

남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가만 있지 못하는 우리 선조들의 정은 이웃간에만 오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졌다고 한다.

호남지방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지도 않고 색깔도 낼새도 안나는데 그것이 들면 화끈해지고 그것이 나오면 오싹해지며 그것이 부풀면 사족을 못쓰고 그것이 불으면 엇처럼 끈적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세상이 캄캄하니 정말 묘한것》이라는

우리 민족이 이처럼 《정의 민족》인것으로 하여 정과 관련한 성구속담들도 특별히 많다.

대표적으로 곱게 보거나 밍게 보이는것이 얼굴생김새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정의 얼마나 두터운가에 따

른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정들면 그만》, 가깝고 다정한 사이일수록 그마한 일로 해서 노여움을 살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정에서 노여움이 난다.》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고운 정 미운 정》, 《낯은 정 보다 기쁜 정이 더 크다.》, 《매 끝에 정이 든다.》, 《정들자 리별》 등을 들수 있다.

19세기 우리 나라에 와 있던 프랑스선교사들이 로마교황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조선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정의 특별히 많고 정으로 련결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은 정으로 뭉치면 로마병사보다 더 강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종이제조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세나라시기의 종이제조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구려시기의 유적에서는 매우 회고 섬유질이 균일하며 면밀하게 짜여져있는 종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종이표백기술과 섬유를 다듬어질하여 그 질을 균일하게 하는 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는 610년에 승려 담장을 일본에 보내어 고급 종이제조기술을 배워주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다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를 백주지

라고 하였다. 이 백주지는 섬유질이 고르고 희며 질기었으므로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종이와도 비교할수 없을 만큼 훌륭한 종이로서 중국에서까지도 천하제일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기의 종이는 글을 쓰고 인쇄하기에 적합하며 질기고 반질반질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웃나라에서는 고려종이를 제일로 여겨 이것을 구하여 글을 쓰는것이 상류층 사람들의 자랑으로 되었다.

중국에서는 우리 종이가 질기다고 하여 등피지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종이는 글을 쓰는데는 물론 우산과 부채를 만들거나 속옷이나 옷을 대신하는데 리용되었으며 과일이나 과줄 등을 담은 그릇, 바느질그릇을 비롯한 각종 장식함을 만드는 데도 리용되었다.

이 백주지는 섬유질이 고르고 희며 질기었으므로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종이와도 비교할수 없을 만큼 훌륭한 종이로서 중국에서까지도 천하제일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기의 종이는 글을 쓰고 인쇄하기에 적합하며 질기고 반질반질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웃나라에서는 고려종이를 제일로 여겨 이것을 구하여 글을 쓰는것이 상류층 사람들의 자랑으로 되었다.

중국에서는 우리 종이

고려시기에 발전한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리조봉건국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리조시기에 들어와서 우리 조신사람들이 차를 마시지 않게 되었고 차마시는 풍습이 완전히 쇠퇴된듯이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한 근거로 리조봉건국가가 고려와는 달리 불교가 아니라 유교성리학을 국교로 삼았기때문이라는 논거를 들고나왔다. 그리고 자료적으로 력사기록들에 차관계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일면적해석에 불과한것이다. 왜냐하면 차문화라는것은 처음에는 불교 특히 선종계통의 음료와 관계되었던것만은 사실이지만 차를 승려들만 마시던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차는 불교승려들이 약재로 리용하였을뿐아니라 양반들이 리용하였을뿐아니라 양반들은 물론 일정한 경제생활을 유지한 사람들도 다 마셨다. 따라서 차마시는 풍습을 꼭 불교의 쇠퇴와만 결부시

켜 본다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불합리한 해석이다.

리조 초기에 봉건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정도 불교가 억제된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리조에 들어와서 사찰이 다 없어지거나 완전히 철폐된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리조의 차문화를 봉건국가에 의한 억불정책(불교를 억압하는 정책)과만 결부시켜 논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리조봉건국가는 15세기 전반기에 《사찰정리》를 진행하였는데 리정계가 죽은 다음 1405년으로부터 1419년, 1421년 3회에 걸쳐 사찰토지와 노비가 몰수되어 국가의 소유, 소속으로 되었다. 그 수는 대략 10만결의 토지와 10만명의 노비였다.

이것은 불교를 완전히 없애거나 폐지한것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인데 불과하였다. 세조(수양대군)는 그 자신이 불교광신자가 되어 불교사찰에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기증하곤 하였다.

서화(수양대군)는 그 자신이 불교광신자가 되어 불교사찰에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기증하곤 하였다.

서화(수양대군)는 그 자신이 불교광신자가 되어 불교사찰에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기증하곤 하였다.

정 이 많은 우리 민족

《정라령》이 널리 불리워진것은 정없이 못 사는 우리 민족의 이러한 풍습을 반영한것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이 이처럼 《정의 민족》인것으로 하여 정과 관련한 성구속담들도 특별히 많다.

대표적으로 곱게 보거나 밍게 보이는것이 얼굴생김새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정의 얼마나 두터운가에 따

우리 나라에서 《국보》로 된 일화

옛날 우리 나라의 일반가정들에서 흔히 사용되던 막사발은 일본에 넘어가 아주 귀하고 가치있는 《국보》로 되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왜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그릇을 만드는 장인들을 끌고간것은 물론 막사발을 수 많이 가져갔다.

우리 나라의 막사발은 일본에서 《농차》(濃茶)의 료행과 관련하여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일본에서 말하는 《농차》라는것은 한잔의 진한차를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마시는것을 의미한다.

당시 도요도미 히데요시(1536-1598)는 많은 무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먼저 차를 마신 후 옆에 있는 무사들에게 차례로 한모금씩

《가즌하다》와 《그즌하다》

공통적인 뜻은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이 허술하지 않고 고루하게 갖추어져 있다는것이다.

개별뜻을 보면 《가즌하다》는 충이 나지 않게 가지런한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편지와 평을 들고 편지받을 사람에게 가서 먼저 편지를 전해주는 유모아

편지받은 사람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인앞에서 제법 편지를 읽는채 하다가

《가즌하다》와 《그즌하다》

공통적인 뜻은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이 허술하지 않고 고루하게 갖추어져 있다는것이다.

개별뜻을 보면 《가즌하다》는 충이 나지 않게 가지런한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편지와 평을 들고 편지받을 사람에게 가서 먼저 편지를 전해주는 유모아

편지받은 사람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인앞에서 제법 편지를 읽는채 하다가

《가즌하다》와 《그즌하다》

공통적인 뜻은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이 허술하지 않고 고루하게 갖추어져 있다는것이다.

개별뜻을 보면 《가즌하다》는 충이 나지 않게 가지런한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편지와 평을 들고 편지받을 사람에게 가서 먼저 편지를 전해주는 유모아

편지받은 사람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인앞에서 제법 편지를 읽는채 하다가

《가즌하다》와 《그즌하다》

공통적인 뜻은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이 허술하지 않고 고루하게 갖추어져 있다는것이다.

개별뜻을 보면 《가즌하다》는 충이 나지 않게 가지런한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편지와 평을 들고 편지받을 사람에게 가서 먼저 편지를 전해주는 유모아

편지받은 사람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인앞에서 제법 편지를 읽는채 하다가

《가즌하다》와 《그즌하다》

공통적인 뜻은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이 허술하지 않고 고루하게 갖추어져 있다는것이다.

개별뜻을 보면 《가즌하다》는 충이 나지 않게 가지런한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편지와 평을 들고 편지받을 사람에게 가서 먼저 편지를 전해주는 유모아

편지받은 사람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인앞에서 제법 편지를 읽는채 하다가

《가즌하다》와 《그즌하다》

공통적인 뜻은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이 허술하지 않고 고루하게 갖추어져 있다는것이다.

개별뜻을 보면 《가즌하다》는 충이 나지 않게 가지런한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편지와 평을 들고 편지받을 사람에게 가서 먼저 편지를 전해주는 유모아

편지받은 사람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인앞에서 제법 편지를 읽는채 하다가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추방섬의 꽃 (5)

글 허문길

《다른게 아니구... 그 그 무뎠게 저는 설을 함께 즐기자고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지둔 지동판을 넘어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동무네 부모님들은 무척 인정이 깊고 다정한분들이었지.》

리재현선생님은 아득히 멀어져간 옛시절에 돌아간듯 즐겁고도 감동깊은 어조로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해야 하누? 그러구 왜 그날 저녁에 나를 만나지 않구 그냥 돌아갔다. 참, 동무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빗어주는 송편을 먹는건데, 선달그름에 10리동판을 넘어왔다가 혼자 가자니 오죽했나. 내가 그날 누구네 송편모임에 갔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